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¹⁾

전우영 · 조은경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의 구조와 내용, 감정이입의 정도, 정보의 양, 그리고 통일에 대한 거리감에 대해 알아보았다. 남녀 대학생 189명이 국가로서의 북한, 북한 주민, 북한 남성, 북한 여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국가로서의 북한에 대한 판단 시에 주로 김일성, 김정일 등과 같은 북한의 지배층과 그들의 공격적이고 남성적인 모습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북한과 북한 남성을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북한 여성에 대해서는 탈북자, 북한 주민, 전통적인 여성, 경제적 궁핍 등과 같은 북한의 피지배층과 그들의 생활상에 기초해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국가로서의 북한과 북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는 공통적인 속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북한과 북한 여성은 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지각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에는 북한 남성과 북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속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 대상자들은 북한 사람에 대한 북한 남성과 북한 여성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거리감을 가깝게 느끼는 정도는 북한과 북한내 하위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 감정이입의 정도, 그리고 정보의 양이 크면 클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로서의 북한에 대한 감정이입의 정도가 클수록 통일에 대해 가깝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 연구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알아보았다.

통일이라는 사건은 두 개의 다른 사상적 정치적 체제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사상적 정치적 체제로 융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차재호, 1993). 따라서 통일과 관련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크게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통일에 대한 많은 논의는 대부분 정치, 경제적인 측면의 통합과 관련된, 즉 구조적인 통일에 관한 내용들로 이루어

졌다. 하지만 완전한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 후 적대적이던 사상과 이념의 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해소와 고정관념의 수정을 위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성영신, 1995; 심진섭, 1995; 전우영, 1999; 정진경, 1996; 차재호, 199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준비작업의 하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알아보고, 북한에 대한 감정이입의 정도 및 북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의 양과 통일에 대

1) 본 연구는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1998년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본 연구의 문제점을 세심하게 지적해주시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정리 과정에 도움을 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의 차지연과 윤선영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거리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리가 어떤 집단에 대해 특정한 내용의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그 집단의 구성원들과 접촉할 때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떤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흑백 차별이 심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죄수들은 공공장소에서 정원 손질이나 보수작업을 하는데 동원됐지만, 백인죄수들은 공공장소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흑인 죄수들만이 공공장소에서 단순작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남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흑인에 대한 두 가지 고정관념을 갖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로 보는 것은 흑인 죄수들이고 이들은 주로 단순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사람들은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더 많은 범죄 행위를 한다고 믿게 될 가능성이 높고, 흑인들은 단순작업을 잘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Hamilton, Stroessner, & Driscoll, 1994). 즉, 흑인 죄수와 백인 죄수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 그 사회의 흑인과 백인 두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Eagly와 그의 동료들(Eagly & Kite, 1987; Eagly & Steffen, 1984)에 따르면 상대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도, 한 국가 내의 하위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마찬가지로, 국가 집단간의 접촉 시에 상대 국가의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느냐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였다. 특히, 국가 집단의 성원들 간의 대면 접촉은 한 국가 내의 하위집단의 성원들 간의 대면 접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회가 매우 적기 때문에 상대 국가에 대한 믿음이나 고정관념은 주로 뉴스에 나오는 사건 등을 통한 간접적인 접촉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것은 그 국가 내에서 높은 지위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낮은 지위의 역할을 가진 사람들보다 뉴스나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그 결과 상대 국가 사람들의 눈에 더 자주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요한 지위의 역할을 남성들이 주

로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남성들은 상대 국가의 관찰자들에게 특출하게 지각되는 영향력 있는 공식적인 역할에 여성들보다 매우 많이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할 때 사용되는 관찰된 사건들의 주인공들은 주로 남성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관찰자들은 상대국가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상대국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상대국가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상대국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는 다르게 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Eagly와 Kite(1987)는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28개국의 남성, 여성, 그리고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이 외국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그 국가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보다는 그 국가의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우영(1999)은 이러한 가정이 북한 및 북한내의 하위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설명하는데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는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은 북한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의 지배층의 특성이 북한의 고정관념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많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북한 지배층의 위치는 북한 여성들보다는 북한 남성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은 북한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과도 유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은 북한의 지배층에 대한 고정관념과 유사할 것이고, 북한의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과도 유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전우영(1999)은 다차원 척도 분석을 통해서 한국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국가로서), 북한 동포, 북한 남자 성인, 북한 여자 성인, 북한 소년, 북한 소녀, 북한 지배층, 북한 피지배층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들은 북한과 북한의 지배층에 대해 거의 동일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 동포, 피지배층, 여성, 소녀에 대해서도 서로 매우 유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두 부류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상당히 달랐다. 그리고 북한의 남성은 북한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국가로서의 북한과 더 가깝게 지각되었다.

전우영(1999)의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국가로서의 북한과 잘 어울린다고 지각한 상위의 성격특성은, 공격적인, 지배적인, 야심적인, 이기적인, 경쟁적인 등과 같은 주도적인 특성들이었다. 즉, 이전 연구들에서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된 내용들이었다(Ashmore, Del Boca, & Titus, 1984; Brewer, 1986; Deaux & Lewis, 1983; Schopler & Insko, 1992). 이와는 달리, 조사 대상자들이 북한 동포와 잘 어울린다고 지각한 상위의 성격특성은, 가정적인, 정직한, 희생적인, 호감이 가는, 친절함, 우호적인 등과 같은 공동체 지향적인 특성들이었다. 즉, 이전 연구들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된 내용들이었다(Ashmore, Del Boca, & Titus, 1984; Deaux & Lewis, 1983). 이러한 성격 특성은 내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Brewer, 1986; Schopler & Insko, 1992).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 대학생들은 북한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와 북한 동포라고 하는 두 집단에 대해 서로 다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남성적인 속성을 지닌 외집단으로, 민족적인 차원에서는 여성적인 속성을 지닌 내집단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전우영(1999)은 한국 대학생들이 국가로서의 북한을 김정일 등을 포함하는 북한 지배층에 기초해서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했었다. 북한의 지배층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남한에 대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역할로 지각되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들이 북한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남성적인 특성을 지닌 외집단으로 지각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조사 대상자들이 북한 동포를 북한의 피지배층에 기초해서 평가했고 여성적인 속성을 지닌 내집단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북한의 피지배층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민족이라는 것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들이 북한을 국민 또는 민족적인 차원에서는 한 핏줄이라는 내집단으로 지각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로서의 북한과 국가의 대다수 구성원인 북한 동포에 대한 고정관념이 상이했던 결과가 나오게 된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로 '북한 동포'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동포라는 명칭 자체가 내집단이라는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동포에 대한 고정관념이 긍정적인 특성들로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전우영(1999)의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이 북한 및 북한 내의 하위 집단에 대해 평가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떠올리며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지 못했다. 따라서 김정일 등을 포함하는 북한 지배층에 기초해서 북한에 대해 평가하였기 때문에, 북한을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 전우영(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또 다른 문제 중의 하나는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성격 특성의 수가 18개로 매우 제한되었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 대상 집단에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모든 집단을 지배와 피지배의 수준에서 평가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전우영(1999)의 연구에서는 남·북한에 대한 고정관념만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는 고정관념과 같은 신념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감정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우영(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로 '북한 동포' 대신 '북한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였다. 둘째, 집단에 대한 평가 시에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질문에 응답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고정관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각 집단 내의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게 기초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았다. 셋째, 조사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및 북한 내의 하위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전 연구보다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성격특성의 수를 늘렸다. 넷째, 평가 대상 집단을 지배와 피지배의 수준에서 평가하도록 유도하지 않기 위해서, 조사 대상 집단 중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북한에 대한 인지적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정보, 감정 및 행동적 차원에 대해서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 및 북한 내 하위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이입의 정도, 정보의 양, 그리고 통일에 대한 거리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방법 및 절차

조사 대상자

연세대학교에서 개설된 교양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로 남자 115명, 여자 74명으로 총 18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들의 나이는 만 18세에서 28세 사이였고, 평균 나이는 22.35세였다.

조사 도구

고정관념: 전우영(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 중의 하나는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성격 특성의 수가 18개로 매우 제한되었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우영(1999)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18개의 성격 특성에 박세선(1991)의 연구에서 사용한 35개의 특성을 추가하여 표 1에 나와있는 것과 같은 총 53개의 성격 특

성에 기초해서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하였다. 53개의 성격 특성이 북한(국가로서), 북한 사람, 북한 남성, 북한 여성과 얼마나 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를 1(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척도 상에서 표시하도록 하였다. 두 개의 차원을 지정하여 다차원 척도 분석을 한 결과 53개 문항 중에서 28개의 성격특성(까다로운, 다정한, 따뜻한, 무책임한, 비판적인, 엄격한, 지배적인, 가정적인, 거만한, 건들거리는, 경솔한, 경쟁적인, 공격적인, 회생적인, 괴팍한, 부지런한, 성실한, 순진한, 야심적인, 우호적인, 이기적인, 이해심 있는, 잘난 체 하는, 차가운, 착한, 천박한, 친절함, 호감가는)이 차원 1과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원 2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성격특성은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원 1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28개의 성격특성에 대한 평가의 평균을 각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측정치로 삼았다(즉, 점수가 커질수록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이 0.88, 북한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0.91, 북한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0.90, 북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0.91로 모두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감정이입: 북한 및 북한 내 하위집단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감정이입의 정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데이비스(Davis, 1983)의 정서적 공감 척도를 변형하여 일곱 개의 문항(예: 북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나는 자주 마음이 움직인다; 북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해도, 나는 그다지 측은해하지 않는다)을 만들었다. 각 문항의 질문들이 북한(국가로서), 북한 사람, 북한 남성, 북한 여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 또는 느낌과 얼마나 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를 1(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척도 상에서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7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각 집단에 대한 감정이입의 측정치로 삼았다(점수가 커질수록 감정이입의 정도가 큰 것으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북한에 대한 감정이입이 0.86, 북한 사람들에 대한 감

정성이입이 0.93, 북한 남성에 대한 감정이입이 0.91, 북한 여성에 대한 감정이입이 0.92로 모두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자유연상 반응: 각 조사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이입의 정도에 대해 평가할 때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질문에 응답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각의 평가 대상(북한, 북한 사람, 북한 여성, 북한 남성)에 대한 질문에 답할 때 머리 속에 떠올랐던 사람이나 대상을 세 개씩 쓰도록 하였다.

북한에 대한 정보의 양: 북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북한의 정치체제, 사회제도,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 수준, 북한의 대중문화, 작년에 기아로 사망한 북한 주민들의 수, 북한의 식량사정,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해 1(전혀 알지 못하다)에서 5(매우 잘 알고 있다)에 이르는 척도 상에서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7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에 대한 고정관념의 측정치로 삼았다(즉, 점수가 커질수록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많은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의 양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0.80이었다.

통일에 대한 거리감: 통일에 대해 얼마나 거리감을 느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심진섭(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기초로, 11개의 문항(예: 통일 후에, 통일로 인해서 지금보다 세금이 더 무거워져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다; 통일 후에, 통일로 인해서 발생한 실업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아도 기꺼이 감수하겠다; 통일 후에, 나는 북한출신이 소속한 친목회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 후에, 나는 자녀가 북한출신과 결혼하는 것을 찬성하겠다)을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11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통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거리감의 측정치로 삼았다(즉, 점수가 커질수록 통일에 대해 우호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거리감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0.90이었다.

결과 및 논의

1. 고정관념의 구조 및 내용

1) 다차원 척도 분석

조사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의 북한, 북한 사람들, 북한 남성, 그리고 북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조사 대상자들이 국가로서의 북한, 북한 사람들, 북한 남성, 그리고 북한 여성을 53개 성격 특성에 대해 평가한 값의 평균을 자료로 이용하여, ALSCAL 프로그램(Takane, Young, & deLeeuw, 1977)을 통한 다차원 척도분석을 하였다.

전우영(1999)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차원을 지정한 결과, 조사 대상 집단별로 두 개의 차원 값이 산출되었다. 그 결과를 도표화 한 것이 그림 1이다. 이 모형의 스트레스 값은 0.361이었고, R^2 값은 .588이었다. 산출된 도표 상의 두 개 차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 성격 특성들과 두 개의 차원 값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차원 1은 까다로운, 무책임한, 비판적인, 엄격한, 지배적인, 거만한, 건들거리는, 경솔한, 경쟁적인, 공격적인, 괴팍한, 야심적인, 이기적인, 잘난 체 하는, 차가운, 천박한 특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원 1은 다정한, 따뜻한, 가정적인, 희생적인, 부지런한, 성실한, 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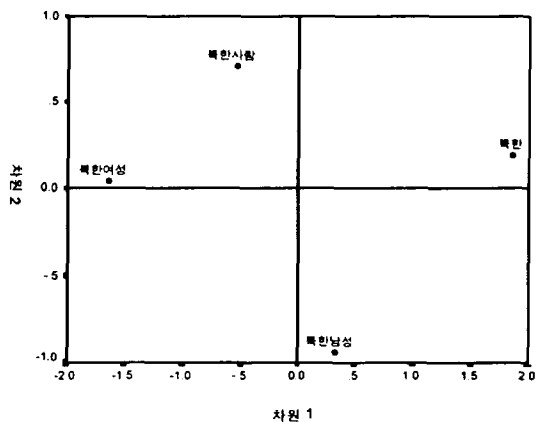


그림 1. 조사 대상 집단의 차원 상의 위치

표 1. 성격 특성과 각 차원간의 상관관계

성격 특성	차원 1	차원 2
과학적인	.689	-.798
까다로운	.970*	-.248
다정한	-.992**	.260
단호한	.946	-.435
따뜻한	-.994**	.231
무식한	.834	.345
무책임한	.969*	.043
부끄러운	.719	.281
비관적인	.762	.357
비관적인	.969*	-.374
상상력있는	-.335	.173
성급한	.880	-.536
실리적인	.904	-.235
어리석은	.874	.360
엄격한	.995**	-.236
예술적인	-.791	.519
우울한	.278	.893
재주있는	-.905	.433
주의깊은	-.670	-.571
지배적인	.984*	-.301
진지한	.115	-.840
가정적인	-.968*	.083
거만한	.994**	-.199
건들거리는	.988*	-.285
경솔한	.998**	-.074
경쟁적인	.963*	-.391
공격적인	.990*	-.188
희생적인	-.966*	.212
피파한	.998**	-.087
남비적인	.902	-.139
도움주는	-.943	-.197
독립적인	.926	-.442
믿음만한	-.911	-.253
부지런한	-.956*	-.123
성실한	-.950*	-.130
순진한	-.979*	.191
야심적인	.994**	-.223
엄숙한	.808	-.495
영리한	.878	-.080
우호적인	-.994**	.059
이기적인	.979*	-.089
이해심 있는	-.992**	.023
익살스러운	-.937	.168
자신 있는	.934	-.322
잘난 체하는	.971*	-.167
정직한	-.901	-.174
차가운	.994**	-.229
착한	-.969*	.032
참을성 있는	-.945	.053
천박한	.995**	-.123
친절한	-1.000**	.162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911	.279
호감가는	-.994**	.130

주. *P<.05, **P<.001

한, 우호적인, 이해심 있는, 착한, 친절한, 호감 가는 특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차원 1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차원 1과는 달리 차원 2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낸 성격 특성은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는 차원 1만을 토대로 조사 대상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이 북한 내의 어떤 하위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가장 유사한가에 관한 것이다. 그림 1에 제시한 결과는 조사 대상자들이 국가로서의 북한을 북한 남성과 가장 가깝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사 대상자들은 북한 여성을 국가로서의 북한과는 가장 멀게 지각하고 있었고, 북한 사람을 북한 남성과 북한 여성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2) 북한, 북한 사람, 북한 남성, 북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특성

북한, 북한 사람, 북한 남성, 북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53개의 성격 특성 중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각 집단과 잘 일치한다고 평가한 상위 10개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2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조사 대상자들은 국가로서의 북한과 북한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속성에는 공통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즉, 북한의 공격적인, 지배적인, 까다로운, 엄격한, 차가운, 단호한 등과 같은 속성을 북한의 남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들은 북한과 북한 남성이 부정적인 속성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하지만 국가로서의 북한과 북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는 공통적인 속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로서의 북한과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도 엄격한 속성만이 공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들은 국가로서의 북한은 북한 사람이나 북한 여성과는 상당히 다른 고정관념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국가로서의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이 북한 남

표 2. 북한, 북한 사람, 북한 남성, 북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특성

북한(국가)		북한 사람		북한 남성		북한 여성	
공격적인	4.37	우울한	3.56	공격적인	3.81	부지런한	3.73
지배적인	4.31	참을성있는	3.56	지배적인	3.74	성실한	3.71
까다로운	4.30	순진한	3.48	엄격한	3.68	순진한	3.66
엄격한	4.10	부지런한	3.47	단호한	3.65	참을성있는	3.60
야심적인	4.10	성실한	3.40	차가운	3.50	회생적인	3.58
차가운	3.97	공격적인	3.33	까다로운	3.46	착한	3.46
단호한	3.93	비관적인	3.30	부지런한	3.46	가정적인	3.44
괴팍한	3.89	엄격한	3.28	진지한	3.43	다정한	3.32
이기적인	3.82	진지한	3.20	비판적인	3.40	재주있는	3.32
실리적인	3.67	착한	3.20	성실한	3.39	예술적인	3.29

주. 점수가 클수록 잘 일치한다고 평가한 것이다.

성 이외의 북한 사람이나 북한 여성과는 상당히 달랐던 것에 비해, 조사 대상자들은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에는 북한 남성과 북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속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즉, 북한 사람의 참을성 있는, 순진한, 부지런한, 성실한, 착한 속성을 북한의 여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북한 사람들은 북한 남성의 고정관념적인 특성인 부지런한, 성실한, 공격적인, 엄격한, 진지한 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3) 북한, 북한 사람, 북한 남성, 북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

조사 대상자들이 고정관념에 대한 질문에 응답할 때 어떤 대상을 생각하면서 질문에 응답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북한, 북한 사람, 북한 여성, 북한 남성에 대한 질문에 답할 때 머리 속에 떠올랐던 사람이나 대상을 최대한 세 개씩 쓰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의 약 63%가 국가로서의 북한에 대해 평가할 때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외에 공산주의, 고위관료들, 북한군, 핵무기와 미사일, 전쟁, 간첩 등에 대해 생각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26.3% 이었다. 따라서 국가로서의 북한을 주로 북한의 지배층과 그들의 공격적인 모습(군, 핵무기, 미사일 등)에 기초해서 판단했다는 응답이 총 8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소수의 응답들 중에는

북한에 대해 평가할 때 김대중, 이회창, 정주영, 박정희, 카터, 폴이 장군, 쉬리, 월드컵 공동개최, 한총련을 생각했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북한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는, 전체 응답의 약 21%가 탈북자에 대해 생각했다고 답했고, 경제적 궁핍이라는 응답이 20.7%, 노동자, 아이들, 여성들을 포함하는 북한 주민이라는 응답이 18.3% 이었다. 따라서 약 60%의 응답이 북한의 피지배층과 그들의 생활상에 기초해서 북한 사람에 대해 평가했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김일성, 김정일, 공산주의, 고위관료들, 북한군, 핵무기와 미사일, 전쟁, 간첩 등의 북한의 지배층과 그들의 공격적인 모습에 기초해서 북한 사람들에 대해 평가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26.8%였다. 이외에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소수의 응답들 중에는 북한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 아오지 탄광, 계순희, 배길수, 매스게임, 적십자, 남북 공동팀, 문선명, 정주영, 쉬리, 중국 동포를 생각했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북한 남성에 대해 평가할 때는 전체 응답의 약 26.9%가 탈북자에 대해 생각했다고 답했고, 경제적 궁핍이라는 응답이 2.8%, 노동자, 아이들, 여성들을 포함하는 북한 주민이라는 응답이 11.5%였다. 따라서 약 41%의 응답이 북한의 피지배층과 그들의 생활상에 기초해서 북한 남성에 대해 평가했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북한 남성에 대해 평가할 때 북한군에 대해 생각했다는 응답이 20.6%였고, 김일성이라는 응답이 9%, 김정일이라는 응답이 10.9%였다. 그리고 공산주

표 3. 조사 대상 집단을 평가할 때 생각했던 항목의 사례수(백분율)

	북한(국가)	북한 사람	북한 남성	북한 여성
김일성	134 (31.3)	26 (8.0)	29 (9.0)	3 (1.1)
김정일	134 (31.3)	21 (6.5)	35 (10.9)	2 (0.7)
공산주의	33 (7.7)	8 (2.5)	14 (4.3)	1 (0.3)
고위 관료	19 (4.4)	9 (2.8)	10 (3.1)	1 (0.3)
북한 군인	21 (4.9)	17 (5.2)	66 (20.6)	5 (1.8)
핵무기와 미사일	19 (4.4)	2 (0.6)	4 (1.3)	0 (0.0)
전쟁	16 (3.7)	3 (0.9)	4 (1.3)	0 (0.0)
간첩	5 (1.2)	1 (0.3)	8 (2.5)	0 (0.0)
탈북자	18 (4.2)	68 (21.0)	86 (26.9)	42 (15.5)
북한 주민	3 (0.7)	30 (9.3)	20 (6.3)	13 (4.8)
노동자	0 (0.0)	8 (2.5)	13 (4.0)	14 (5.2)
아이들	0 (0.0)	9 (2.8)	0 (0.0)	0 (0.0)
전통적 여성	0 (0.0)	3 (0.9)	0 (0.0)	32 (11.8)
직장 여성	0 (0.0)	9 (2.8)	4 (1.2)	55 (20.3)
경제적 궁핍	3 (0.7)	97 (20.7)	9 (2.8)	19 (7.0)
북한 지역	6 (1.4)	5 (1.5)	0 (0.0)	0 (0.0)
김현희	2 (0.5)	5 (1.5)	0 (0.0)	28 (10.3)
기쁨조	0 (0.0)	2 (0.6)	0 (0.0)	24 (8.9)
기타	15 (3.5)	31 (9.6)	18 (5.6)	32 (11.8)
계	428(100.0)	324(100.0)	320(100.0)	271(100.0)

의, 고위관료들, 핵무기와 미사일, 전쟁, 간첩 등에 기초해서 북한 남성에 대해 평가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12.5%였다. 따라서 북한의 지배층과 그들의 공격적인 모습에 기초해서 북한 남성에 대해 평가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53%였다. 이외에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소수의 응답들 중에는 북한 남성에 대해 평가할 때 강인함, 냉정함, 무표정, 금강산 안내원, 세관원, 뉴스앵커, 이명훈, 축구 선수, 자전거, 최대치(태백산맥), 최재성, 풀이 장군, 초등학교 도덕책, 간첩 리철진을 생각했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북한 여성에 대해 평가할 때는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여성에 대해 생각했다는 응답이 약 20.3%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외에 탈북자, 북한 주민, 노동자, 전통적인 여성, 경제적 궁핍 등에 대해 생각했다는 응답이 약 44.3%였다. 따라서 약 64.6%가 북한의 피지배층과 그들의 생활상에 기초해서 북한 여성에 대해 평가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김일성, 김정일, 공산주의, 고위 관료, 핵무기와 미사일, 전쟁, 간첩 등에 기초해서 북한 여성에 대해 평가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4.2%

에 불과했다. 따라서 북한 여성에 대해 평가할 때 북한의 지배층과 그들의 공격적인 모습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북한 여성에 대해 평가할 때 김현희를 생각했다는 응답이 약 10.3%였고, 기쁨조를 생각했다고 답한 사람도 약 8.9%였다. 이외에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소수의 응답들 중에는 북한 여성에 대해 평가할 때 “진달래 꽃 필 때까지”라는 책의 저자와 그 어머니, 재봉틀, 김운진(쉬리), 나이든 할머니, 남남북녀, 덩수룩한 머리, 풀이 장군, 매스게임을 하는 학생들, 민영미(금강산 관광), 연변 조선족 처녀, 최승희, 남북의 창, 태백산맥, 해수욕을 묘향산으로 간다고 한 여자, 김정숙을 생각했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조사 대상자들이 북한, 북한 사람, 북한 남성, 북한 여성에 대해 평가할 때 생각했던 항목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북한의 지배층과 그들의 공격성과 관련된 것들(김일성, 김정일, 공산주의, 고위 관료, 북한 군인, 핵무기와 미사일, 전쟁, 간첩)이고, 또 다

표 4. 조사 대상 집단을 평가할 때 생각했던 지배층과 피지배층 관련항목의 수

	북한(국가)	북한 사람	북한 남성	북한 여성
지배층	381	87	170	12
피지배층	24	224	132	175

른 하나는 북한의 피지배층 및 그들의 생활상과 관련된 것들(탈북자, 북한 주민, 노동자, 아이들, 전통적 여성, 직장 여성, 경제적 궁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개의 범주별로 조사 대상자들이 북한, 북한 사람, 북한 남성, 북한 여성에 대해 평가할 때 생각했던 지배층과 피지배층 관련항목의 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인 조사 대상 집단에 따라 평가 시 생각했던 지배층과 피지배층 관련항목의 비율이 달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을 하였다¹⁾.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집단에 따라 생각했던 지배층과 피지배층 관련항목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다($\chi^2(3)=517.63, p<.001$).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자들이 국가로서의 북한과 북한 남성에 대해 평가할 때는 지배층과 관련된 항목을 피지배층과 관련된 항목보다 많이 생각했지만, 북한 사람이나 북한 여성에 대해 평가할 때는 지배층과 관련된 항목보다 피지배층과 관련된 항목을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2. 조사 대상자들의 특성과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우선, 조사 대상자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²⁾. 표 5에 제시된 결과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크면 클수록 조사 대상자들이 북한, 북한 사람, 북한 남성, 북한 여성에 대해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입의 정도가 크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통일에 대해 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자들의 태도는 5점 척도 상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3점은 중립적인 태도를, 3점 이상은 긍정적인 태도를, 그리고 3점 이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1) 이 분석은 심사위원님의 제안에 기초한 것이다.

2) 이 분석은 심사위원님의 제안에 기초한 것이다.

표 5. 조사 대상자들 전체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 (사례수 = 189)

	평균	표준편차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	2.18	0.46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3.14	0.53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2.76	0.48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3.50	0.49
북한에 대한 감정이입	2.65	0.78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	3.19	0.84
남성에 대한 감정이입	2.56	0.81
여성에 대한 감정이입	3.12	0.84
북한에 대한 정보의 양	2.66	0.58
통일에 대한 거리감 (가깝게 느끼는 정도)	2.79	0.66

주. 조사 대상자들의 태도는 5점 척도 상에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클수록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입의 정도가 크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통일에 대해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3점을 비교기준으로 삼아 짝진 *t* 검증을 하였다. 즉, 조사 대상자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이 3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가를 알아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평균=3.14)과 감정이입(평균=3.19), 북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평균=3.50)과 감정이입(평균=3.12)의 평균은 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t_{188}=3.56, p<.001$; $t_{188}=3.04, p<.01$; $t_{188}=14.15, p<.001$; $t_{188}=2.00, p<.05$). 즉, 조사 대상자들은 북한 사람과 여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입의 정도도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평균=2.18)과 감정이입(평균=2.65), 북한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평균=2.76)과 감정이입(평균=2.56)의 평균은 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았다($t_{188}=-24.34, p<.001$; $t_{188}=-6.18, p<.001$; $t_{188}=-6.71, p<.001$; $t_{188}=-7.43, p<.001$). 즉, 조사 대상자들은 국가로서의 북한과 북한 남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입의 정도도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의 양(평균=2.66)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평

균=2.79)도 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t_{188}=-7.94, p<.001; t_{188}=-4.33, p<.001$). 따라서 조사 대상자들은 북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통일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멀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성별, 가정의 월 평균 수입, 북한 또는 통일관련 활동 경험 유무, 친가나 외가에 실향민이 있는지의 여부, 고향, 군복무 여부, 종교, 전공계열과 같은 조사 대상자들의 배경변인에 따라 조사 대상자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는 고향, 군복무 여부, 종교, 전공 계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변인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후의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 성별에 따른 조사 대상자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의 차이

조사 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라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 검증을 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이 여성보다 북한과 북한 남성에 대해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은 여성보다 북한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답했

다. 마지막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통일에 대해 더 가깝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외의 조사 대상자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2) 가정의 월 평균 수입에 따른 조사 대상자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의 차이

조사 대상자들 가정의 월 평균 수입에 따라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변량분석을 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들 가정의 월 평균 수입에 따라 북한과 북한 남성에 대한 감정이입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이 200만원 이하로 가장 낮았던 집단이 북한과 북한 남성에 대한 감정이입의 정도가 가장 컸던 반면, 월 평균 수입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이 가장 높았던 집단이 북한과 북한 남성에 대한 감정이입의 정도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 평균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보다 국가로서의 북한과 북한 남성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정도가 작았다. 하지만 이외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는 조사 대상자들 가정의 월 평균 수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표 6. 성별에 따른 조사 대상자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

	남자 (n=115)	여자 (n=74)	t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	2.24 (.49)	2.10 (.40)	2.072*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3.15 (.54)	3.12 (.52)	.317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2.83 (.50)	2.67 (.44)	2.258*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3.48 (.52)	3.53 (.43)	-.577
북한에 대한 감정이입	2.66 (.80)	2.64 (.75)	.142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	3.10 (.88)	3.33 (.76)	-1.856
남성에 대한 감정이입	2.60 (.82)	2.49 (.80)	.942
여성에 대한 감정이입	3.07 (.70)	3.20 (.72)	-1.087
북한에 대한 정보의 양	2.77 (.56)	2.49 (.58)	2.860*
통일에 대한 거리감 (가깝게 느끼는 정도)	2.94 (.63)	2.57 (.66)	3.899**

주 1. 평균(표준편차), * $P<.05$, ** $P<.001$

2. 점수가 클수록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입의 정도가 크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통일에 대해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표 7. 가정의 월 평균 수입에 따른 조사 대상자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

	200만원 이하 (n=63)	300만원 이하 (n=44)	300만원 초과 (n=49)	F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	2.19 (.47)	2.23 (.51)	2.18 (.48)	.147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3.27 (.48)	3.20 (.57)	3.04 (.59)	2.637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2.83 (.49)	2.80 (.50)	2.69 (.53)	1.190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3.60 (.43)	3.52 (.51)	3.40 (.58)	2.079
북한에 대한 감정이입	2.83 (.75)	2.75 (.78)	2.43 (.80)	3.906*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	3.34 (.84)	3.20 (.83)	2.99 (.91)	2.407
남성에 대한 감정이입	2.84 (.86)	2.57 (.84)	2.31 (.73)	5.677*
여성에 대한 감정이입	3.22 (.79)	3.26 (.94)	2.91 (.83)	2.503
북한에 대한 정보의 양	2.78 (.58)	2.54 (.59)	2.67 (.60)	2.108
통일에 대한 거리감 (가깝게 느끼는 정도)	2.94 (.64)	2.89 (.69)	2.67 (.67)	2.489

주 1. 평균(표준편차), *P<.05, **P<.001

2. 점수가 클수록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입의 정도가 크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통일에 대해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표 8. 북한 또는 통일관련 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조사 대상자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

	북한/통일관련 활동 경험		t
	있다 (n=7)	없다(n=182)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	2.79 (.69)	2.16 (.44)	3.670**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3.54 (.40)	3.12 (.53)	2.071*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3.13 (.44)	2.75 (.48)	2.073*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3.71 (.41)	3.49 (.49)	1.157
북한에 대한 감정이입	3.37 (.74)	2.62 (.77)	2.520*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	3.92 (.51)	3.16 (.84)	2.380*
남성에 대한 감정이입	3.33 (.78)	2.53 (.80)	2.579*
여성에 대한 감정이입	3.78 (.83)	3.10 (.83)	2.122*
북한에 대한 정보의 양	3.21 (.44)	2.61 (.55)	2.861*
통일에 대한 거리감 (가깝게 느끼는 정도)	3.19 (.63)	2.78 (.66)	1.649

주 1. 평균(표준편차), *P<.05, **P<.001

2. 점수가 클수록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입의 정도가 크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통일에 대해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4) 북한 또는 통일관련 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조사 대상자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의 차이

조사 대상자들이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없다 로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북한 및 통일관련 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라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 검증을 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및 통일관련 활동 경험이 있었다고 답한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보다 북한, 북한 사람, 그리고 북한 남성에 대해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 및 통일관련 활동 경험이 있었다고 답한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보다 북한, 북한 사람, 북한 남성, 그리고 북한 여성에 대해 더 많은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 및 통일관련 활동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북한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북한 및 통일관련

활동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과 그러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 간에 통일에 대한 거리감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6) 친가나 외가에 실형민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른 조사 대상자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의 차이

조사 대상자들의 친가나 외가에 실형민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 검증을 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친가나 외가에 실형민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보다 북한 여성에 대해 더 많은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외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는 조사 대상자들의 친가나 외가에 실형민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5) 고향에 따른 조사 대상자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의 차이

조사 대상자들의 고향이 서울인지 지방인지에 따라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 검증을 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고향이 지방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서울이라고 답한 사람들보다 북한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외의 북한 및 통

일에 대한 태도는 조사 대상자들의 고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3.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

조사 대상자들이 지각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11에 제시한 결과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은 북한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53$). 하지만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북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의 상관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r=0.17$). 반면,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은 북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0.69$), 북한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과도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r=0.63$). 이러한 결과는 다차원 척도 분석의 결과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차원 척도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들은 국가로서의 북한을 북한 남성과는 가장 가까운 것으로, 그리고 북한 여성과는 가장 먼 것으로 지각하였고, 북한 사람은 북한 남성과 북한 여성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둘째, 북한, 북한 사람, 북한 남성, 북한 여

표 9. 친가나 외가에 실형민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른 조사 대상자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

	친가나 외가에 실형민이		t
	있다(n=41)	없다(n=148)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	2.18 (.53)	2.18 (.44)	-.041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3.24 (.54)	3.11 (.52)	1.447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2.81 (.57)	2.75 (.46)	.655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3.56 (.52)	3.48 (.48)	.872
북한에 대한 감정이입	2.68 (.86)	2.64 (.76)	.240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	3.40 (.86)	3.13 (.83)	1.679
남성에 대한 감정이입	2.72 (.84)	2.52 (.80)	1.428
여성에 대한 감정이입	3.41 (.80)	3.04 (.83)	2.501*
북한에 대한 정보의 양	2.61 (.58)	2.64 (.55)	-.286
통일에 대한 거리감 (가깝게 느끼는 정도)	2.79 (.71)	2.79 (.65)	-.022

주 1. 평균(표준편차), * $P<.05$, ** $P<.001$

2. 점수가 클수록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입의 정도가 크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통일에 대해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표 10. 고향에 따른 조사 대상자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

	고향		t
	서울 (n=104)	지방 (n=79)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	2.23 (.46)	2.14 (.47)	1.300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3.14 (.55)	3.16 (.49)	-.263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2.78 (.44)	2.76 (.53)	.332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3.47 (.50)	3.56 (.48)	-1.234
북한에 대한 감정이입	2.61 (.80)	2.71 (.77)	-.890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	3.12 (.89)	3.28 (.77)	-1.277
남성에 대한 감정이입	2.53 (.84)	2.60 (.78)	-.608
여성에 대한 감정이입	3.08 (.90)	3.19 (.77)	-.860
북한에 대한 정보의 양	2.55 (.52)	2.76 (.55)	-2.648*
통일에 대한 거리감 (가깝게 느끼는 정도)	2.73 (.69)	2.87 (.62)	-1.394

주 1. 평균(표준편차), *P<.05, **P<.001

2. 점수가 클수록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입의 정도가 크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통일에 대해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표 11.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	1.000									
2.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337**	1.000								
3.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527**	.634**	1.000							
4.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165*	.688**	.366**	1.000						
5. 북한에 대한 감정이입	.411**	.246**	.335**	.241**	1.000					
6.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	.210**	.357**	.248**	.307**	.751**	1.000				
7. 남성에 대한 감정이입	.324**	.295**	.462**	.154*	.675**	.713**	1.000			
8. 여성에 대한 감정이입	.232**	.283**	.191**	.344**	.683**	.823**	.677**	1.000		
9. 북한에 대한 정보의 양	.144*	.149*	.202**	.033	.219**	.170*	.229**	.143*	1.000	
10. 통일에 대한 거리감 (가깝게 느끼는 정도)	.392**	.352**	.472**	.252**	.576**	.443**	.513**	.435**	.289**	1.000

*P<.05, **P<.001

성에 대한 감정이입은 상당히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과 북한 여성에 대한 감정이입은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r=0.82$). 셋째, 고정관념과 감정이입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았다. 넷째, 북한에 대한 정보의 양과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감정이입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거리를 가깝게 느끼는 정도는 북한과 북한 내 하위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 감정이입의 정도,

그리고 정보의 양이 크면 클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북한 사람, 북한 남성, 북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이입,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보의 양이 통일에 대한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동시 회귀분석(simultaneous regression)을 하였다. 그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북한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북한에 대한 감정이입,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보의 양이 통일에 대한 거리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로서의 북한에 대한

표 12. 북한 및 북한내 하위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이입, 정보의 양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과의 회귀관계

	통일에 대한 거리감 (가깝게 느끼는 정도) β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	.048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063
남자에 대한 고정관념	.210*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	.010
북한에 대한 감정이입	.387**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	-.118
남성에 대한 감정이입	.101
여성에 대한 감정이입	.108
북한에 대한 정보의 양	.126*
R^2	.449**

* $P < .05$, ** $P < .001$

감정이입의 정도가 통일에 대한 거리감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조사 대상자들은 국가로서의 북한에 대한 판단 시에 주로 김일성, 김정일, 공산주의, 고위 관료들, 북한군, 핵무기와 미사일, 전쟁, 간첩 등과 같은 북한의 지배층과 그들의 공격적인 모습에 기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 남성에 대한 판단 시에도 북한의 지배층과 그들의 공격적인 모습에 기초했다는 응답이 약 50% 이상이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들은 북한과 북한 남성을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국가로서의 북한을 북한 여성이나 북한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북한 남성과 유사한 것으로 지각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사 대상자들은 북한을 주로 북한의 지배층과 그들의 공격적인 모습에 기초해서 평가했던 반면, 북한 여성에 대해서는 탈북자, 북한 주민, 노동자, 전통적인 여성, 직장 여성, 경제적 궁핍 등과 같은 북한의 피지배층과 그들의 생활상에 기초해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국가로서의 북한과 북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는 공통적인 속성이 발견되지 않

았고, 북한과 북한 여성은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지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사 대상자들은 북한 사람을 주로 탈북자, 노동자, 아이들, 여성들을 포함하는 북한의 피지배층과 그들의 생활상에 기초해서 평가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북한의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모습도 북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들의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에는 북한 남성과 북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속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 대상자들은 북한 사람을 북한 남성과 북한 여성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넷째, 조사 대상자들 중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이 많았던 사람들보다는 적었던 사람들이, 북한 및 통일관련 활동 경험이 없었다고 답한 사람들보다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친가나 외가에 실향민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보다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그리고 고향이 서울이라고 답한 사람들보다 지방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북한 또는 북한 내의 하위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이입, 정보의 양, 통일에 대해 가깝게 느끼는 정도 중 한 가지 이상의 차원에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 및 통일관련 활동 경험이 있었고 답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보다 상당히 많은 차원에서 북한 및 북한 내 하위 집단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북한 사람, 그리고 북한 남성에 대해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 북한 사람, 북한 남성, 그리고 북한 여성에 대해 더 많은 감정이입을 하고 있었으며,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물론 이는 북한 및 통일 활동 경험이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도왔을 가능성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에 더 많이 참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통일에 대한 거리를 가깝게 느끼는 정도는 북한과 북한 내 하위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

감정이입의 정도, 그리고 정보의 양이 크면 클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로서의 북한에 대한 감정이입의 정도가 통일에 대한 거리감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로서의 북한에 대한 감정이입의 정도가 클수록 통일에 대해 가깝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로서의 북한과 북한 동포에 대한 고정관념이 상이하게 나온 전우영(1999)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국가로서의 북한과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서로 다르게 나왔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 연구 시에 한 가지 주의할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나라에 따라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그 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연구하기 위해 그 나라의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을 연구한다면 이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 시에 연구의 목적이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인지 또는 그 국가의 구성원들에 대한 고정관념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우영(1999)의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가정적인, 정직한, 회생적인, 호감이 가는, 친절함, 우호적인 등과 같은 긍정적인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북한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고정관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 대상자들은 북한 사람이 착함, 참을성 있는, 순진함, 부지런함, 성실함 등과 같은 긍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울함, 공격적인, 비판적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이전 연구들(차재호, 1992; 홍기원, 1999)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북한 사람'에 대해 부지런하다, 순박하다, 주체성이 강하다, 협동·단결력이 강하다 등과 함께 독재적이다, 배타적이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고정관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전(전우영, 1999) 연구에서 북한 동포에 대해 조사 대

상자들이 긍정적인 고정관념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동포'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조사 대상자들로 하여금 북한 동포를 내집단으로 지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또한 고정관념 연구를 비롯한 집단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특정한 집단을 지칭하기 위해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가가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생각해 볼 또 다른 문제 중의 하나는,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전우영, 1999), 조사 대상자들이 국가로서의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매우 강하게 나타났던 반면, 북한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대상자들은 국가로서의 북한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성들이 부정적인 것이며, 이러한 특성들이 매우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평균: 4.37 - 3.67). 반면, 북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성들이 긍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평균: 3.73 - 3.29).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 대학생들이 국가로서의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 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표 3의 결과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 즉, 조사 대상자들이 국가로서의 북한에 대해 평가할 때 생각했던 대상이 428개였던 것에 비해, 북한 여성에 대해 평가할 때는 271개의 대상만이 머리 속에 떠올랐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들은 국가로서의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북한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지만, 북한 여성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했고 그 결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조사 대상자들이 북한, 북한 사람, 북한 남성, 그리고 북한 여성에 대해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조

사 대상자들이 통일에 대해 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북한, 북한 사람, 북한 남성, 그리고 북한 여성이 긍정적인 특성을 매우 많이 그리고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심리적으로 통일을 원하는 정도가 커질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전 연구(전우영, 1999)와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자들은 북한, 북한 사람, 북한 남성, 그리고 북한 여성 중 어떤 집단도 긍정적인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 대상자들은 전체적으로,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멀게 느끼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일부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이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한국의 일부 집단이 통일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북한 및 북한 내 하위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은 이후의 남·북 통합에 큰 심리적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대학생들이 미래의 통일과 관련된 논의와 작업을 수행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북한 및 북한 내 하위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의 완화 또는 해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후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의 사회 심리학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세선(1991). 한국의 중학생과 대학생들의 성고정관념 내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성영신(1995). 통일 그 이후: 심리적 갈등과 그 조화. 한국언론학회·중앙일보사 통일 그 이후 심포지엄 논문집.
- 심진섭(1995). 남북통일과 남·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 - 대학생, 실항민, 귀순자, 배우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전우영(1999). 남·북한 고정관념에 대한 탐색: 성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19-232.
- 정진경(1996). 문화 이해지 - 통일과 심리적 화합.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pp.53-69).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차재호(1992). 외국인에 대한 학생 및 성인의 태도. 문교부학술연구조성비 지원 자유공모과제 연구보고서.
- 차재호(1993).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심리학적 조망.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1993년도 한국심리학회 통일문제 학술 심포지엄 논문집.
- 홍기원(1999). 우리 나라 대학생들이 주요 외국인들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 현대사회심리학연구(pp. 77-99). 시그마프레스.
- Ashmore, R. D., Del Boca, F. K., & Titus, D.(1984, August). *Types of women and men: Yours, mine, and ou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Brewer, M. B.(1986). The role of ethnocentrism in intergroup conflict. In S. Worchel & W.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88-102). Chicago: Nelson-Hall.
- Davis, M. H.(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Deaux, K., & Lewis, L. L.(1983). Components of gender stereotypes. *Psychological Documents*, 13, 25. (Ms. No. 2583).
- Eagly, A. H. & Kite, M. E.(1987). Are Stereotypes of nationalities applied to both women and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451-462.

- Eagly, A. H. & Steffen, V. J.(1984). Gender Stereotypes stem from the distribution of women and men into social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735-754.
- Schopler, J., & Insko, C. A.(1992). The discontinuity effect in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relations: Generality and mediation. In W. Stroebe & M. Hewstone(Eds.), *European review of Psychology*(Vol. 3, pp. 121-151). Chichester, UK: Wiley.
- Takane, Y., Young, F. W., & deLeeuw, J.(1977). Non-metric individual differences multidimensional scaling: An alternating least squares method with optimal scaling features. *Psychometrika*, 42, 7-67.

Stereotypes of North Korea and Psychological Distance Toward Unification

Woo-Young Chun and Eunkyung Jo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Behavior, Yonsei University and
Department of Psychology, Hallym University

A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stereotype of North Korea and the inter-relationship among emotional empathy with North Korea, the amount of information on North Korea, and the psychological distance toward unification. One hundred-eighty nine college South Korean students evaluated four groups: North Korea as a nation, its residents in general, North Korean men and women. Students reported that when they evaluated North Korea as a nation the first image that came to their mind were political leaders, especially Kim Il-Sung and Kim Jung-il, and their aggressiveness and masculinity. They perceived both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men as aggressive and dominant. On the other hand, college students evaluated North Korean women on the basis of their percep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and their economic hardship. There was no common attribute between the stereotype of North Korea as a nation and that of North Korean women. A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showed that the stereotype of North Korean residents lay in the middle of those of North Korean men and women. North Korea as a nation and North Korean women were located on the opposite side of a multidimensional scale. The more positively South Korean students perceived North Korea and its people, the more they emotionally empathized with North Korea, or the more information on North Korea they had, the smaller was their psychological distance toward unification.